

〈제7회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 참가 후기



윤혜인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생연구참여프로그램’과 같이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직접 연구를 해 보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다. 그때 막 학생자율교육 프로그램이 생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신이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 교수님과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는데, 대학원 진학을 한 학기 앞둔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학생연구참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를 하는 동안 줄곧 생각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특히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연구계획서와 전공분야의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는 같은 전공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려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교수님과의 토론시간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하고 지도를 받는 것은 학부생에게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지도를 맡아주신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대학원 과정의 대학원생과 동등한 토론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학원 과정을 조금이나마 실제로 겪어 볼 수 있었으며, 진학 후 공부를 더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강의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과제와는 달리 연구주제 선정부터 신청, 진행까지 자신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연구에 대한 책임감은 연구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책임감을 기를 수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길 권하고 싶다. 아마도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예비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가야 할 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